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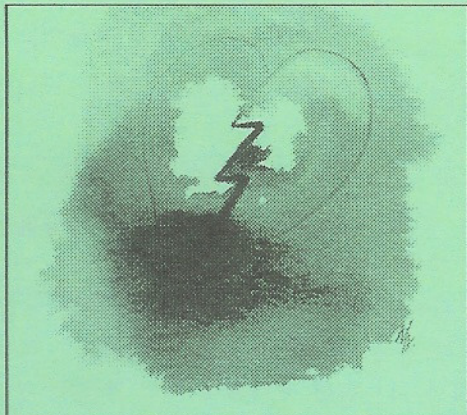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2주일

제29권 40호(나해) 2009 · 8 · 30

[묵상]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5)

모세의 율법은 불결한 짐승들을 지정하였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3-21에 적혀있다. 무엇을 먹을 수 있으며 무엇이 안 되는지... 발굽이 이렇고 저렇고, 새김질을 하니 마니, 날개달린 곤충은 안 되나 정결한 날개는 어떻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니 없니 ... 살아있다면 무엇이든 다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읽다보면 머리가 다 아파온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도 위생상의 문제가 아닌가? 창조주께서는 피조물 모두를 보고 좋다 하셨는데 이유야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 십계명으로 율법을 만들고, 율법으로 관습을 만들어 이를 전통이라 여기며 계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금지조항을 어기면 곧 부정(不淨)과 죄가 성립된다. 먹는 것이 죄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날 없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진실로 부정한 것을 선포하신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의,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무지 등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 신현익, 켄 오이시, 김소천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생) 정케빈 요셉, 신승록 스테파노 가정, 조은하 율리아나, 김금점 모니카
주 일 낮 미사	(연) 이병호 토마스, 김중환 야고보,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금순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박요한,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영자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박분도, 이마리아, 잔 리, 이규형 곤잘레스, 장현숙 발바라, 매일호 헨리
	(생) 오준석 비오 가정, 김중렬 베드로, 배경한 찰스 & 수전, 배경미 안젤라 & 배태임 안나, 윤결 바르톨로메오, 유영희 그레고리오 & 양정훈 클라라 가정, 남가주 제30차 여성 꾸르실료 참가자들(고규재 체칠 리아, 엄혜은 도로테아, 채승희 에스터, 최경애 프란 치스카), 이태석 요한 사제,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4,1-2.6-8
화답송	◎주여, 당신 장막에 묵을 이 누구오리까. ○허물없이 살아가며 의를 하는 이, 마음속에 진리를 품은 이, 제 혀로 하리질 아니하는 사람이외다.◎ ○벗에게 해로운 일 아니하는 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이. 악한 자를 눈아래 알아 보아도, 주를 섬기는 이면 존경하는 그 사람이외다.◎ ○길미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는 이, 무죄한 이 다칠세라 뇌물 받지 않는 이. 이같이 하는 사람은, 쓰러질 리 없으오리다.◎
제 2독서	야고보서(James) 1,17-18.21-22.27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복음	마르코(Mark) 7,1-8.14-15.21-23
영성체송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8	188
봉헌	269	268,226
성체	온맘 다해	307,295
파견	383	227

31) 고의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생명을 이끌어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오직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온전히 완성을 찾는 것이지만, 이미 이곳 지상에서 결실을 거두어야 할 선으로서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다. 고의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불러오거나 자살하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이다. 인간의 편에서 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느님의 주권과 사랑의 계획에 대한 거절로 간주되는 것이다.”<안락사에 관한 선언 1장>

최근 논란이 되는 ‘존엄사’ 논쟁에서 많은 이들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환자가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인간은 출생과 죽음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어진 생명을 최선을 다해 완성으로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므로 인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불러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존엄사’가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과도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료 중단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의미라면 비윤리적인 것으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32)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살인행위이다.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대로의 살인행위이다.”<가톨릭 교리서 2277항>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불치의 환자가 병고로 심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적인 품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생명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남의 생명을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고통을 줄인다는 명목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안락사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살인죄임을 분명히 합니다. 한편 교회는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과도하고 의료집착적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의사의 양심과 판단, 그리고 환자의 동의 하에 중단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존엄사’는 간접적인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를 떠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준수되어야 할 규칙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만일 그 규칙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 틀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규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백성이라고 불리는 한, 그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법규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사회를 이루는 집단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법규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율법 규정과 법규들을 이스라엘에게 선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선사된 것이기에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법규를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규정과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킨 사랑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규이해와 실행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그 충만한 의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그 근본을 잊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망각되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의무는 억지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켜져야 하는 의무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관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해방시킨 사랑의 하느님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로만 사랑의 하느님을 섬겼을 뿐, 실상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밝히고 고발하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시킬 뿐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충만함과 성숙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결함의 인간들만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율법 규정과 법규는 의무 규정 이전에 사랑의 규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상응하여 율법과 관계 규정을 지키십시오.

◆이규성 토마스 신부 /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대훈 아오스딩	신덕래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황지영 안젤라	전하연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런스 동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중철 아브라함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금자 테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

- ◆ 병자 영성체 : 3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 시간 : 3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서구역
- ◆ 성모 신심 미사 : 5일(토) 오전 8시30분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8월29일(토) 오후 6시 유아세례식에서 2명의 어린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리스천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정해담 안토니오, 김리원 안토니아

◆ 남가주 여성 제30차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 올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30일) 오후 7시30분, 강당
- 새 꾸르실리스타 : 고규재 체첼리아, 엄혜은 도로테아, 채승희 에스터, 최경애 프란치스카

◆ 2009년 복사단 모집 안내

- 대상 : 2009년 첫 영성체를 한 2학년~6학년
- 접수 : 오늘 주일(30일)~9월6일(주일) 사무실 접수
- 복사단 입단을 위한 매일미사 참례는 9월9일(수), 10일(목), 16일(수), 17일(목)입니다.
- 문의 : 수녀님

◆ 구역장 / 반장 일일 연수 연기

- '성체신심' 세미나 관계로 구역장/반장 연수를 연기했습니다.
- 새 스케줄을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바오로 서간 필사 완필하신 분 시상식

- 일시 : 9월6일(주일) 낮미사 중에
- 상품 : 김수환 추기경 DVD 영상물

◆ 남가주 M.E. 제64차 첫주말 에 본당에서 4쌍 참가

- 일시 : 9월11일(금)~13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P.V.)
- 참가부부 : 김관기 라파엘 & 명채 아가다
유근우 알렉시오 & 현화 리디아

금영도 베드로 & 유미 크리스천시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 희경 크리스티나

- 문의 : 백삼위 M.E. 대표 김인자 요세피나 부부 ☎803-0777

◆ St. Margaret Mary 본당 연례 로미타 축제

- 9월11일(금)~13일(주일),
- St. Margaret Mary 성당 : 25511 Eshelman Av, Lomita
- 각종 게임, 다민족 음식 판매, Rides, Live Entertainment, Queen Contest, Craft Fair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 Raffle 티켓 판매 : 1장당 \$2 (1등 \$15,000 & more)
오늘 주일(30일) 학생미사와 낮미사 후 우리 본당에 와서
티켓 판매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 모든 수익금은 본당 사목과 St. M.M. 학교기금으로 이용됩니다. 교우들의 호응을 바랍니다.

◆ 여성 분과 '미션' 순례

- 일시 : 9월12일(토) 오전 8시~오후 5시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에서 버스로 출발
- 장소 : 산타바바라 미션
- 대상 : 성모회, 자모회, 구역장, 반장 * 참가비 : \$10

◆ 남가주 한인 가톨릭 청년 연합회 2009년 퀴즈대회

지난 4년간 남가주 한인 가톨릭 청년연합회는 본 퀴즈대회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각 성당간의 교류와 친교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일시 : 9월19일(토) 오후 6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 참여인원 : 200명 이상 * 지도 : 최용훈 요셉 신부

◆ 청년 레지오 마리에 프레시디움 '다윗의 탑' 창단 준비모임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 2층 교실
- 참석대상 : 대학부 PACEM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김수환 추기경 DVD 영상물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십시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30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콩나물밥 \$3)
- 9월6일(주일) : Labor Day 연휴주간으로 친교없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광기	김기석	김병학	김선영	김완태
	김재연	김정순	김종진	김준호	김철민	박수익
	박진심	신순철	양영관	유근태	윤화경	이상철
	이인석	이일길	이재정	정해홍	차봉관	최원석
	최진수	한창주	한혁수	신영웨이		
합계 : \$3,680						
미사헌금 : \$2,355						

성전헌금	강태홍	김광기	김기석	김병학	김선영	김재연
	김준호	김철민	박수익	신순철	윤화경	이상철
	이인석	이재정	정해홍	차봉관	최원석	최진수
	한창주	한혁수				
합계 : \$2,240						
감사헌금 : 양정훈						

공지 사항

❀ 축하합니다. ❀

- ◆ 혼배성사 : 2009년 9월5일(토) 오후 3시, 본당
♡ 남인구 야고보 & 변정선 안젤라 ♡
- 주례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 부모님 성함 : 남정안 & 현숙
변혜경 율리아나

주일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기간 : 9월27일(주일)까지
 - 등록비: \$100 (9월14일 이후 \$11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 무료 * 자모회비: \$40 (가정당)
 - 특히 * 2학년- 첫 영성체반 * 9학년-예비 견진 교리반 * 10학년-견진 교리반을 운영하오니,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꼭 등록을 하여 주십시오.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속히 마치주시면 모든 준비에 도움이 되오니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 한국학교 2009~2010 학년도 1학기 등록
- 등록기간 : 오늘주일(30일)부터 매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프리스쿨(만4.5세), K~12학년까지,
11월 SAT II 시험 준비학생(\$150, 교재비 포함)
 - 등록비 : 첫째아이 \$150, 둘째 \$140, 셋째 \$130, 넷째부터 무료
- ☎ (310)347-8765 이헬레나 교장

남가주 소식

- ◆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미사 및 봉헌식
- 일시 : 9월8일(화) 오후 7시
 - 장소 : 성 바실 본당(637 S. Kingsley Dr. LA)
 - 미사집전 : 김 도미니코 신부
- ◆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19번 피정으로 초대합니다.
- 일정 : 2009년 9월~2010년 6월(9월 시작을 위한 준비)
주 1회 개인의 영적 지도자와 만남/월 1회 기도 체험 나눔
 - 내용 : 일상의 삶 안에서 말씀을 통한 기도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LIS)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허레지나 ☎(714)606-6679,

이번 주 단체 모임

8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না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유현자 아나 328-3697 9/11(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정기은 비오 618-9775 9/19(토) 오후 7시
	3	신덕례 데레사 634-6169	신덕례 데레사 634-6169 9/17(목) 오후 8시2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교복 레오 328-1817 9/12(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최상만 사비노 800-7393 9/18(금)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9/15(화) 오전 10시 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최옥희 데레사 378-4183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희자 마리아 325-6982 9/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이용식 베드로 962-8414 9/11(금) 오후 7시
	3	대전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김명숙 루실라 404-6012 9/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선제 바오로 435-9925 9/15(화) 오전 10시, 성당

◎ (4) “성체를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

이탈리아를 둘러본 배낭 여행객이 프랑스 남동부를 거쳐 파리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있다. 바로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이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위치를 서울에 비유한다면, 마르세유는 부산, 리옹은 대구쯤 있다고 보면 된다. 오늘날 프랑스 축구리그의 ‘올림픽 리그’로 유명한 리옹은 기원전 로마의 군사 주둔지가 되면서 도시화됐다. 이후 13세기에는 공의회가 두 차례나 열릴 정도로 가톨릭교회로선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도시다. 비안네 신부가 첫 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 받은 ‘아르스’는 이곳 리옹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3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오늘날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서 수원교구 서호본당(수원시 권선구 서둔동)까지 가는 거리다. 서호본당은 특히 당시 아르스의 신자 수와 본당 재정상태 등이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1818년 2월 9일 비안네 신부가 주임으로 발령받아 도착한 아르스는 가난한 농촌마을이었다. 주민 수는 240여 명에 불과했다. 성당도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낡은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의 신심까지도 그리 깊지 않았다. 젊은이들 대부분이 성당에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 교리지식조차 몰랐다. 프랑스대혁명(1789년)이후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은 더 이상 신앙에 대해 목말라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신앙보다도 향락에 더 친숙해 있었다. 거의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흥청거렸다. 주일미사도 어쩌다 한 번이었다. 첫영성체 이후, 영성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남녀 신자들이 허다했다.

그러나 훗날 이 성당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유럽 전역에서 비안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기 위해 신자들이 몰려든다. 신자들은 비안네 신부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아르스를 찾는다. 뒤에서 자세히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선 시골본당에 갓 부임한 불품없는 외모의 한 젊은 사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 사제관에 도착해 짐을 풀 비안네 신부는 마음이 무척 상했다. 낡고 초라한 성당에 비해 사제관이 화려했기 때문이다. 비안네는 사제관에 있는 가구들을 없애기 시작했다. 비단으로 감싼 의자와 두 개의 화려한 침대 및 이불까지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다. 남은 것은 나무 침대와 낡은 테이블, 옷장이 전부였다.

비안네 신부는 바로 ‘사목’에 착수한다. 매일 시간을 쪼개서 신자 가정을 방문했고, 신자들과 영적 대화를 나눴다. 특히 그는 강론에도 집중했다. 문장력이 서툰 그는 3~4쪽 분량의 강론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처음에는 거의 매일 밤을 새우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강론 원고를 모두 암기했다. 신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강론 원고를 중얼거리며 외우는 비안네 신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비안네 신부가 강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었다. 그는 이 사랑과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했다. 특히 비안네 신부는 성체를 자주 영하라고 권고했다.

“성체를 모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쉬도록 초대하십니다.”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에 식료품을 잘 보관하기 위한 저장실이 있습니다. 감실은 우리 모두의 저장실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잠시 저러다 말겠지!”였다.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려 했는데, 짝 막힌 신부님이 마을에 오셔서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비안네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좌절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또 사제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식사도 줄이는 등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늘 죄를 멀리 했으며, 하느님과 기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

비안네 신부의 일화를 조사하던 중, 감동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비안네 신부가 얼마나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아르스의 한 마을 이장이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멀리 비안네 신부가 보였다. ‘신부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지?’ 이장이 다가갔다. 비안네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오, 나의 하느님! 저희 본당 신자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가톨릭 신문 - 계속]